



**[뉴스]**  
비상하는 LCC  
진에어  
대형기로 중장거리 개척  
02



**Economy**

코스피	2145.12 (-16.73)	코스닥	718.87 (-12.63)
금리 (국고채 3년)	2.04 (-0.01)	환율 (원-달러)	1134.30 (+2.90) (15일)

## 청소년까지 번진 자살공화국의 슬픈 자화상

# ‘또래’간 경쟁에, 가족갈등에… 2만명이 ‘자살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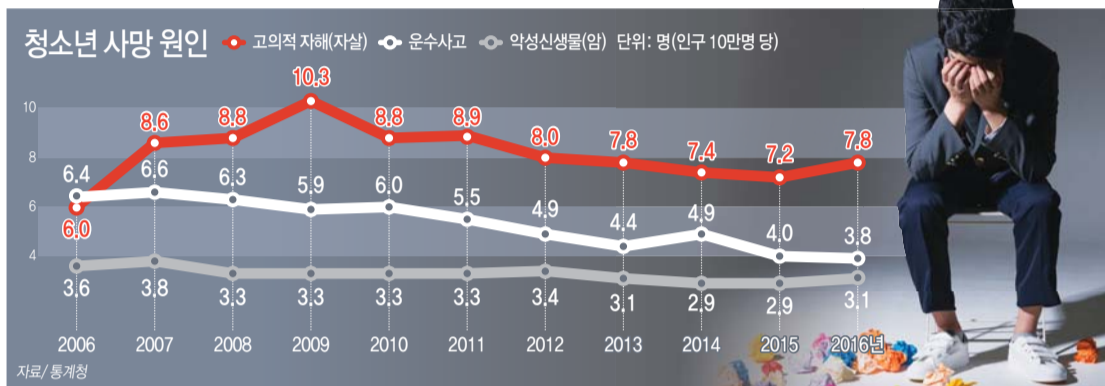
(10대 청소년)

지난 1일 서울 은평구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8일 경영난에 시달리던 치과 원장 A(52) 씨가 대구 수성구의 한 공원에서 자살했다. 일련의 비극은 우리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세대별 자살 원인과 문제점, 예방 대책 등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자, 살자! 자살률 1위 오명 낱출하자

#### 1 아이들, 왜 자살을 선택했나

작년 청소년 3일에 1명 자살 자살시도 451명 ‘역대 최대’  
무한경쟁이 부른 사회 재난 SNS 자해콘텐츠 영향도 커



#### 〈청소년 자살원인〉

1. 학업스트레스 41%
2. 가족갈등 22%
3. 선후배 등 갈등 8%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자살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2009년 10.3명(인구 10만명 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10대들의 SNS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과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률 증가를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입을 모은다.

#### ◆10대 자살 원인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사물에 한 명 풀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 시도 학생은 4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7 학교보고기 반 심리부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사망자 수는 114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보다 6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은 451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37명이었던 자살시도자는 2012년 63명, 2013년 74명, 2015년 258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451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생 자살 시도자는 2012년 3명에서 2017년 36명으로 5년만에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된 자해 관련 콘텐츠가

자살 저연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업 문제나 가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SNS를 통해 강한 자극을 받다 보면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왜 죽고 싶어하는 걸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성적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27.3%), 가족갈등(22.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8.3%), 경제적 어려움(1.7%)이 뒤를 이었다.

제갈정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이 학교 성적과 대학 입시 등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10대들이 친구를 전부 경쟁 상대로 인식하다 보니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는 학생도 크게 늘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검사 응시 학생(189만4723명) 가운데 4.36%인 8만2662명이 ‘관심군’에 속했다. 1만6940명(0.89%)은 수위가 더 높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관심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자살위험군은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청소년 자살을 막을 방법은?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 대책 및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파리서 현대 수소차 투싼 택시기사와 대화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인 알마광장에서 가스 업체 에어리퀴드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투싼’을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와 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뉴시스

**社告**

### 메트로미디어 ‘2018 제약바이오포럼’

## 제약-바이오 경계 넘어...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인약품 복제약)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학의약품 복제약(제네릭)의 과열 경쟁과 신약 부재로 인한 매출 침체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사이 바이오 의약품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3년 9억달러(약 9600억원)에서 2016년 43억달러(약 4조 6000억원)로 3년새 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관련 시장은 2020년에는 304억달러(약 33조원), 2026년에는 800억달러(약 8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오는 2020년 까지 바이오시밀러 국내 생산 200억 달러, 수출100억 달러를 목표로 적극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 동안 합성의약품에 집중해온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바이오의약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어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CJ헬스케어 등 대형 제약사들 역시 바이오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독점 판매에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업계 상황에 맞춰 메트로미디어는 오는 31일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2018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강경선 강스스템바이오 이사회 의장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전망을 비롯, 날로 커지는 제약과 바이오산업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 제: 제약과 바이오의 경계를 넘어
- 일 시: 2018년 10월 31일 9:00~11:30
- 장 소: 서울 을지로입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 최: 메트로미디어
- 문 의: (02) 721-9826
- 참가비: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사전등록: forum@metroseoul.co.kr 또는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로 신청

**metro®**

## “폐북, 국내계정 3.5만개 유출… PW 변경을”

(비밀번호)

#### 방통위, 유출 경위 등 조사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한국인 개인정보 약 3만5000개가 유출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으로 인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방침을 밝혔다.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이용자 계정 약 5000만개의 액세스 토큰이 탈취됐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1일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 유출규모 및 유출경위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지난달 발생한 페이스북 네트워크 해킹 사건 당시 해커들이 계정 40만개를 통제 아래 두고 사용자 약 29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약 1400만명은 연락처 정보, 성별, 구사하는 언어, 종교, 친구와의 관계·지위, 최근 로그인 정보와 검색기록, 사용하는 디바이스 유형 같은 더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당시 해킹의 영향을 받은 사용자 수가 5000만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또 영향을 받

았을지도 모르는 사용자 포함 해 약 9000만 명의 사용자 계정을 강제 로그아웃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14일 페이스북은 한국인 유출 계정 수는 3만4891개로 추정된다고 방통위에 알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인 이용자에게 조치할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당부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사이트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은 1주일 이내에 해킹당한 사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주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한 뒤 새로 설

정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지역에서 로그인할 때 추가적인 보안 수단인 2단계 인증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확인되지 않은 로그인 알림받기’ 기능을 이용해 자기 계정정보를 사용하여 누군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앱과 웹사이트 중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방통위는 한국인 개인정보의 정확한 유출규모와 유출경위 및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고 법률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